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1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25.

발 의 자 : 박용갑 · 박정현 · 황정아
조승래 · 장종태 · 이훈기
박상혁 · 김영환 · 소병훈
윤준병 · 박희승 · 이건태
이병진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천안함 피격 사건, 제1·2연평해전 등 교전의 생존 장병 중 일부는 전역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(PTSD)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. 이들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음.

지난 2022년,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베트남전 참전 장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며 “PTSD는 외상 후 짧게는 1주에서 3개월 이내 증상이 시작되지만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길게는 30년이 걸리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”고 밝힌 바 있음.

또 정신적 상이는 신체적 상이와는 다르게 발현 시점이 다양하고 진단 시기를 놓치기 쉬우며, 객관적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특수성이

있음.

이에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상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, PTSD 등 정신적 외상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조의4제2항).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4제2항 중 “상이 부위 및 양태,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”을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상이 부위 및 양태
2.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
3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
4.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) ① (생 략)	제6조의4(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<u>상이 부위 및 양태,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</u>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.	②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 ----- -----.
<u><신 설></u>	<u>1. 상이 부위 및 양태</u>
<u><신 설></u>	<u>2.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</u>
<u><신 설></u>	<u>3.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의 정도</u>
<u><신 설></u>	<u>4. 그 밖에 상이등급의 구분을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</u>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